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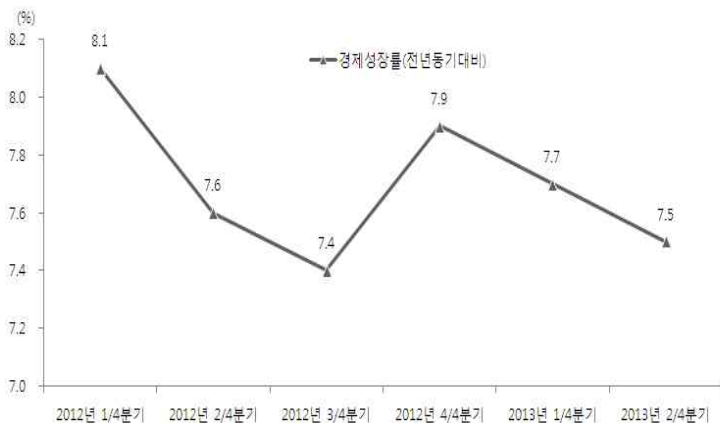
2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

이소양 연구원

■ 7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/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.5%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
- 2013년 1/4분기 7.7%에 이어 상반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7.6%에 그침.
- 2012년 2/4분기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5분기 연속 8%를 하회하였고, 2012년 4/4분기부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

〈그림 1〉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■ 소비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투자가 소폭 둔화되었고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것이 2/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분석됨.

- 상반기(1~6월) 소매판매 증가율은 1/4분기에 비해 0.3%p 상승한 12.7%로 나타났으나 이는 금값 하락으로 인한 귀중품 소비 29.7%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며,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/4분기 20.9%보다 0.8%p 하락한 20.1%에 그침.
-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1/4분기 18.4%보다 8%p 크게 하락한 10.4%에 그침.

- 상반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22.8%를 기록했으나 EU와 일본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각각 3.9%, 3.8% 감소하였고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1.8%에 그침.

■ 경제성장 방식전환에 중심을 두는 중국 새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2013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목표치 7.5%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.

- 앞서 6월 중국 리커창 총리가 경기부양책 미실시, 금융 디레버리지(deleveraging) 및 구조적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(1)을 제기하였으며,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단기적인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.
- 또한 상반기 중국경제 성장률 발표 후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3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하였음.
 - JP Morgan 및 Standard Chartered는 각각 2013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.6%, 7.7%에서 7.4%, 7.5%로 하향조정하였음.
 -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2013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.2%에서 7.7%로 하향조정하였음.
-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중국경제가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.

■ 중국경제 성장 둔화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중국에 대한 교역정책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- 2012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우리나라 수출의 24.2%, 수입의 16.8%를 차지하였음.
-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이 투자 및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무역 중간재 중심에서 내수시장용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중국 국내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(WSJ, FT 등)

1) Barclays Capital이 최초로 이를 리커노믹스(Likonomics)로 지칭함.